금융위원회	보도참고자료	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배포시 배포 2026. 11. 13.(금)

신진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, 씨티그룹 국제부문 총 책임자 면담

신진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**11월 13일(금)** 정부서울청사에서 **글로벌 금융그룹**인 **씨티그룹**의 **어네스토 토레스 칸투**(Ernesto Torres Cantu) **국제부문 총 책임자**(Head of International)와 면담을 갖고 **한국 금융시장**에 대한 **지속 투자** 및 **양측 간 협력 방안** 등을 논의하였다.

신 부위원장은 **글로벌 금융그룹**은 **국가 간 자본**과 **기업**을 연결하는 **가교**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. 특히 **씨티그룹**은 '67년 **외국계 은행 최초**로 **국내**에 **지점**을 설립한 이후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**최초 도입***하며 **한국 은행산업**의 **성장** 역사를 함께해 온 오랜 파트너라고 평가하였다.

* 개인재무관리(PB; Private Banking, '89년), 365일 자동화 코너('90년), 직불카드('93년) 등

이에 씨티그룹은 **한국**이 **AI·반도체** 등 **첨단산업**을 **중심**으로 **견조한 성장 기반**을 갖춘 중요한 시장이라고 평가하며, **한국시장**에 대한 **지속적인 투자 의지**를 **표명**하였다. 아울러 **글로벌 네트워크**와 **전문성**을 바탕으로 한국의 **혁신·성장 기업**에 대한 **기업금융 지원**을 **강화**하겠다는 뜻을 밝혔다.

신 부위원장은 씨티그룹의 지속적인 투자와 기업금융 지원 확대 의지를 환영하고, 한국 정부의 **생산적 금융 전환 기조**에 맞추어 **한국 기업**의 **혁신**과 **성장**, **글로벌 경쟁력 강화**를 적극 지원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.

아울러 양측은 씨티은행의 **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**('21.10월 발표) 과정에서 **기존 금융소비자**에 대한 **면밀한 보호**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, **이용자보호 계획**이 차질 없이 **이행**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**소통**하기로 하였다. 또한 AI **기술 발전**에 따른 **새로운 사이버 위협**에 **대응**하기 위해 **글로벌 차원**의 **정보 공유**와 **공동 대응**을 **강화**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며 면담을 마무리 하였다.

담당 부서	글로벌금융과	책임자	과 장	나혜영 (02-2100-2880)
		담당자	사무관	김혜수 (02-2100-2886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대체불가 대한민국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